
		보 도 자 료		수도권매립지 종료		
		배포일자 2022년 4월 7일(목) 총 3매	 환경특별시 인천			
담당 부서	정책기획관실	담당자	• 기획팀장 양상훈 ☎440-2131 • 담당자 황선조 ☎440-2135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춘 시장, 변화의 시기 “경제특별시·환경특별시 인천” 도약 재강조
- 시·도지사협의회 당선인 간담회 통해 수도권매립지 종료 등 건의 -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은 7일 시청에서 열린 ‘4월 실·국장회의(비대면 영상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 인천은 앞으로 10년 사이 경제와 환경이 가장 크게 변화한 ‘경제특별시·환경특별시’로 도약하고, 부산을 넘어서는 대한민국 제2의 도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변화의 시기에 이러한 비전 달성을 위해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벤치마킹, 시민들과의 현장소통강화, 정책연구와 개발, 치열한 고민과 혁신 등 공직자들이 중심을 잡고 맡은 바 업무에 충실히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최근 인천시가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으로부터 연이어 좋은 평가를 받는데 있어 인천시 공직자들의 부단한 혁신과 노력 덕분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인천시는 최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발표한 2022년 민선7기

전국 시도지사 공약이행 종합평가결과에서 최우수등급인 SA등급을 받았고, 한국일보·한국정보사회학회가 공동주관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경쟁력 평가결과 특별·광역시 부문에서 종합 1위를 달성*했다.

* 지속적인 순위상승: 2022년 1위←2021년 3위←2020년 4위

박 시장은 이 모든 것은 300만 인천시민과 7천여 공직자들이 함께 이뤄낸 것이라면서 시민들과 공직자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한편, 박 시장은 어제 열린 대통령 당선인과 시·도지사협의회 간 간담회 자리에 참석해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부회장이자 인천광역시시장으로서 자치분권과 인천의 균형발전을 위한 중요과제를 건의했다.

우선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건의했다. 당선인께서 인천시민의 숙원인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대해 임기 내 해결의지를 여러 차례 밝혀온 만큼, 수도권매립지 종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자원순환 정책을 선진화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또한 강화·옹진 등 접경도서지역과 인천의 낙후지역에 대한 수도권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강화·옹진은 수도권 규제와 함께 접경지역 규제 등 다양하고 중복된 규제를 받고 있다.

그런데 올해부터 정부가 강화·옹진을 포함해 전국 89곳을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하고 연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박 시장은 “정부 한 쪽에서는 엑셀레이터를 밟고, 다른 한 쪽에서는 브레이크를 밟다보면 정부예산은 낭비되고 정책효과는 반감되고, 주민불만은 높아질 것이라”며 합리적인 규제 철폐 내지 완화를 주문했다고 전했다.

그 외에도 지방재정이 국가사업에 대한 매칭에 급급하지 않고 균형발전과 주민밀착형 서비스 제공 등 본연의 목적에 쓰일 수 있도록 중앙-지방 간 역할 재조정과 지방재정 확충을 건의했다고 전했다.

박 시장은 어제 건의한 사항 외에도 인천 시민들의 숙원들이 새로운 정부에서 잘 반영되고 해결될 수 있도록 행정부시장을 중심으로 인천 시 모든 공직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과 지역사회의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 관련 사진은 행사(10시30분)종료 후 인천시 홈페이지

‘인천시 인터넷방송’(<http://tv.incheon.go.kr/>) ‘포토인천’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 별첨 > 실국장 회의자료 및 말씀자료